

4-6-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출애굽기 12:21-32

말씀제목: 어린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400 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집트 땅에 재앙들을 보내시어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어 파라오의 아들부터 비롯하여 모든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린양의 피는 앞으로 어린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모형으로 어린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파라오같은 악한 마귀의 종들로부터 해방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파라오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으려고 공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계속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벧전 5:8-10)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후 파라오는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육백 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말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폰 맞은편 피하히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출 14: 5-9)

의기양양하게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파라오의 공격을 받고 부르짖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출 14:10)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출 14:11-12)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집트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들로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  
마귀는 영과 혼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옛날  
파라오처럼 그들을 삼키려고 여러가지로  
공격하며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빠져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 길로 행하다가 마침내 그들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보면서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집트인들 모두를 홍해 바다 속으로 끌어들여  
심판하실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막다른 골목 같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뉴월드 오더(New  
World Order)의 세력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 같은 온갖 종류의 울무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만 해도 여러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전 10:13)

아멘! 할렐루야!